

상폐 우려 커지자 대출·회사채도 부담… 中企 자금난 가중

기업 체급별 금융은도차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등 코스닥 기업들이 상장폐지 우려에 자금조달 부담까지 겹치면서 ‘돈맥경화’에 내몰리고 있다. 코스닥에서 퇴출 가능성이 커진 기업은 주가와 기업가치 하락에 이어 신용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자금조달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특히 자금조달 선택지가 제한적인 중소기업은 상장폐지 리스크가 자금난으로 직결되면서 정상적인 영업과 투자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상폐 우려 기업, 은행에서도 ‘고위험’ 되나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기준 강화 여파가 자본시장을 넘어 은행권의 간접금융(대출)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은 여전히 은행 대출이다. 대기업처럼 회사채를 수시로 발행하거나 여러 금융기관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일수록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8%포인트(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2%, 중소기업대출은 0.82%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은 0.92%까지 올라 6월 기준 2016년(0.9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장기화된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의 상황 여력이 약해진 가운데 은행 입장에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시중은행 취약기업 리스크 점검 나서
중소법인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기업대출 늘며 차주 선별관리 부각
정책금융 中企대출 비중 83% 넘어

앞서 은행권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421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폭인 5조4000억원을 웃돌았다. 중소기업 대출은 3조9000억원 증가해 대기업 대출 증가분(3조8000억원)보다 약 1000억원 많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의존도도 여전히 높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70조1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1% 순증했다. 전체 원화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83.4%로 지난해 말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기업은행이 취급하는 원화대출 100원 가운데 83원 이상이 중소기업에 공급된 셈이다.

이런 환경에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진 기업은 은행의 여신 관리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들은 상폐 우려가 높은 기업에 대한 리스크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폐지가 곧 기업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 투자와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현금흐름과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기업들이 가장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코스닥 기업을 둘러싼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 대출과 회사채 등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우려하는 지점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상장폐지 우려로 유상증자 등의 자금조달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차환까지 어려워질 경우 정상적인 영업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AAA급 늘고 하위등급 발행은 급감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경계 고조
中企 대출금리 상승폭 대기업 두배
시중 유지기준 상향 6개월 유예

◆ 금리 양극화… 중소기업 자금줄 빨간불

회사채 시장에서도 기업 간 자금조달 여건의 온도차는 커지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은 물론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에도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반 회사채 발행액은 25조90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조8320억원에서 31.5%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기업 대출은 총 25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의 증가액인 20조4000억원을 상회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도 24조원 늘었다.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은행 대출로 자금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7월 무보증 일반회사채 가운데 ‘AAA’급 발행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1% 증가했다. 반면 AA등급 발행액은 24조100억원에서 15조300억원으로 37.4% 감소했으며, A등급은 10조4440억원에서 5조6617억원으로 45.8%, BBB등급은 1조3560억원에서 5750억원으로 57.6% 급감했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늘어난 반면 등급이 낮아질수록 발행 위축 폭이 커진 것이다.

신용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AA-등급 3년물 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크레딧 스프레드는 4월 기준 0.687%포인트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0.4~0.5%포인트 수준과 비교하면 크게 확대된 수준이다.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는 투자자들이 회사채에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출금리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나타났다. 올해 1월과 비교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대기업 대출금리는 0.08%포인트

상승한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17%p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상승폭이 대기업보다 두 배 이상 컸다. 다만 7월 들어서는 흐름이 다소 달라졌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4.17%에서 4.18%로 0.01%p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38%에서 4.22%로 0.

16%p 하락했다. 기업 여신 확대를 위한 우대금리 지원과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 등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끌어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기준 코스닥 시장의 최근 12개월(TTM) 순이익은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높고, 주가수익비율(PER)은 2020년 12월 이래 최저 수준”이라면서도 “적자 기업과 성장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최근 금리 상승은 부담 요인”이라고 짚었다. 코스닥 시장의 유의미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고채 3년물 금리의 하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상폐 문턱 조정했지만 과제는 여전… “기업 실질가치 봐야”

정부가 지난 4일 상장폐지 제도의 보완책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시장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내년 1월 예정됐던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유지 기준 300억원 상향을 6개월 유예하고,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정리매매 없이 코

넥스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면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에서 영업이익을 냈거나, 1개 연도 흑자와 함께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을 갖춘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퇴출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됐다고 해서 자금조달 문제가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상장폐지 우려가 불거진 기업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면 은행의 여신 심사와 투자자의 자금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결국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 체계기업과 일시적인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기준을 밑돈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특히 기술특례상장 기업 처럼 사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업에 동일한 시가총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NEXT INTELLIGENCE

기술의 눈을 통한 사람의 시선으로

고려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서울캠퍼스: 2026.09.07.(월) 10:00 - 09.09.(수) 17:00
세종캠퍼스: 2026.09.07.(월) 10:00 - 09.11.(금) 18:00
접수처: oku.korea.ac.kr